

'DMZ포럼'서 이재명 "정부·국제사회와 南北교류 열어가겠다"

[CBS노컷뉴스 특규 기자]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최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판티킴푹(PHAN THI Kim Phuc) 여사,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여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DMZ포럼 2019' 행사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정상이 작년 9월 9일 발표한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구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건설과 맞물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인천의 강화군,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 염안군, 강령군, 해주시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DMZ라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진정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남북 평화경제교류의 중심으로서 각종 물류, 경제 및 산업, 그리고 대북협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대북협력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관련 역할을 설명했다.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와 공항·항만 같은 인프라 정비,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산업부문 및 인력 육성, 관련 도시·산업공간의 정비, 남북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경기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도는 정부의 DMZ 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언제나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DMZ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 나갈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면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여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는 특히 남북교류 추진을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을 공언했다.

"최근 1~2년 사이에 DMZ는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DMZ 생태계는 자연의 보고이자 관광지와 각종 역사유적이 함께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경기도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인류의 복합유산으로 DMZ를 세계에 재인식각인시킬 수 있다면, DMZ는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DMZ 포럼 2019' 킨텍스서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 DMZ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나서



오늘(19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최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판티 킴푹 (PHAN THI Kim Phuc) 여사,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여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신항철 경기일보 사장, 로날드 애블러 前 세계지리학 연합회장,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대운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이재명 “DMZ 평화지대화...국제사회 협력 추진”

“냉전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다엠제트(DMZ) 포럼 2019’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남북교류와 중앙정부,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초연설에서 “1년 전 남북 정상회담이 만난 이후 더디지만 긴 역사의 안복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성숙해졌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보다 튼튼해졌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한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구상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건설과 맞물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엠제트를 넘어 남북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집중된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진정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다엠제트 평화지대화를 이루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타고 중국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2040년, 2050년 다엠제트 포럼이 열릴 때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분단 현실에 굴하지 않고 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사진 경기도 제공

금단의 땅, 평범한 국경 될 수 있을까

DMZ 평화적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 토론 이어져

19일 열린 ‘다엠제트(DMZ) 포럼 2019’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서명 이래 왕래가 불가능하던 경계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며 “다엠제트를 평범한 국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다엠제트의 기원과 방안’ 도론회에 참석한 그는 남북 정상 간에 ‘군사분계에 관한 역사적인 관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협정’ 이후 냉전의 상징인 다엠제트를 평범한 국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경지대 행정

정의 민간 이양 △국경지대에 마려 해부기 갑속 협정 모니터링 당시 도입된 것과 같은 전자·비디오 장비 등 발전된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남북 간 관문점 협정 이행 조치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그는 “상징적 조치가 아닌 상호구조적인 조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이 동시적으로 △상호 간 징집된 군인 수 줄이기 △다엠제트 인근 지역에서 병력 및 장비 철수 등을 구체화하는 군축을 위해 상호 검증 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원전 한 비핵화 없는 태당트(김장 완화)가 앞으로 유지될지와 북한 내부 정치 상황의 불투명성,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미-중 간 북한 문제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전혀 없는 전전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전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도론회에는 김한정·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토론한 △다엠제트 생물 다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다엠제트 관광과 북한 관광 등 다엠제트의 평화적 활용을 비롯한 11개 기획제션도 함께 열렸다.

한편 20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시그프리드 헤커 스텐퍼드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도론회가 진행된다. 홍용덕 기자

‘네이팜탄 소녀’의 당부...“한반도 평화는 겸손·인내 요구”

“한반도의 평정은 오랫동안 유지받은 유무형의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남북 정상과 3·1절 80주년 기념식 1주일 기념에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2019년 DMZ 포럼 2차 회의에서 유네스코 평화문화 전신대사인 관티엠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19일은 1973년 6월 23일 베트남 전쟁 당시 불에 탄 여섯살 소녀인 김옥희 씨의 생일이다. 관티엠티는 “그녀의 모습은 당시 전쟁의 참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1991년 단 소녀로 알려진 그녀의 사상은 베트남 전쟁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됐다.

2차 회의의 주제를 거론한 관티엠티는 “어린 소녀로서 세계 젊은이들 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을 뛰어넘어 고령을 맞이하면서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이 나

베트남전 참상 사진속 주인공 관티엠티는 관티엠티를 연설 “남북, 평화노력 포기하지 말라”

베트남전에 걸어서 넘어진 클로디아 스타이닝도 참석 “미국은 중립성인부터 해야”

를 겪어고 있었다”며 “역사적 과반과 비슷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고 같은 피해를 볼 때는 다음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평화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화는 노리를 요구한다”며 “남북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노련과정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24일 전세계 여성평화운동가 30명과 함께 북반에서 직접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어오는 워먼크로스(Women's Cross) 캠페인을 펼쳤던 클로디아 스타이닝은 “세계가 이 분단 전쟁을 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정자의 의미로 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19일 오후 2시 30분,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년 DMZ 포럼 2차 회의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관티엠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어린 소녀로서 세계 젊은이들 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을 뛰어넘어 고령을 맞이하면서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이 나

그는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접근을 일방적으로 단호하는 접근은 (제거되지) 아니다. 비핵화를 위한 접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남북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을 존중해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임시적인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티엠티는 “전쟁과 군사주의는 가장 위험한 집단 안전 위협과 여성을 폭력의 희생자로 만든다. 한국과 평화정책 과정에서 긍정적인 접근은 적극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때 찾아온다는 남

북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차 인사에 이어 2차 회의가 열렸다. 관티엠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어린 소녀로서 세계 젊은이들 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을 뛰어넘어 고령을 맞이하면서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이 나



관티엠티는 19일 오후 2시 30분,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년 DMZ 포럼 2차 회의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관티엠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어린 소녀로서 세계 젊은이들 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을 뛰어넘어 고령을 맞이하면서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이 나

관티엠티는 19일 오후 2시 30분,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년 DMZ 포럼 2차 회의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관티엠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티엠티는 “어린 소녀로서 세계 젊은이들 같은 전쟁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을 뛰어넘어 고령을 맞이하면서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이 나



19일 오전 고양시 컨벤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포럼은 9-19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해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산인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 및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재명기자 dba210@incheonilbo.com>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인 'DMZ 포럼 2019'가 19일 고양 컨벤스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3면

이날 개최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등주원시장, 판티킵족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넨 미국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이 참석했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티킵족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넨 미국 사회운동가의 기초연설과 '특별세션', '기획세션' 등 크게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DMZ 포럼 개막

현반도 평화 등 논의

특별세션에는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조성원 전 미국대학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 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지역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최사를 통해 "전쟁과 갈등, 살육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의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자리는 DMZ가 인류역사와 한반도에 하게 될 역할에 대해 생각해고 의논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dba210@incheonilbo.com>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지역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최사를 통해 "전쟁과 갈등, 살육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의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자리는 DMZ가 인류역사와 한반도에 하게 될 역할에 대해 생각해고 의논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dba210@incheonilbo.com>